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13	다 같 이
기 도	Prayer	남영아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룻기4:1-13	인 도 자
설 교	신앙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51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김정순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오후 1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9월 2일 제57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사람들은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과 부담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부담과 짐을 덜려고 합니다. 물론 인생의 수고와 짐을 덜게 하시는 것 이것은 분명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저 아무런 부담도 짐도 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마11:29-30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짐을 내려놓으려고 예수님을 찾을 이들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과 멍에를 메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멍에를 메는 것이 당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짐을 덜려고 온 사람에게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은 육신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위해 거룩한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안식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짐이고 부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부담과 짐 지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멍에와 짐을 지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역설적인 신앙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기업 무르는 일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서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나누어 주신 땅입니다.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일이 부담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을 회복케 하는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일이기에 여기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잃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그 기업을 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무를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은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손해 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선뜻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사서 되돌려 줘야 하고, 아들을 낳아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잇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될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원합니다. 책임을 감수합니다. 희생합니다. 이것이 보아스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요함이 그를 존귀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부요함으로 룻의 인생을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존귀해 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저들의 기업을 회복시키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할 때 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살며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담을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웃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겨나길 원합니다. 교회는 부담을 덜고 짐을 덜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자원해서 부담과 짐을 지기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 신앙은 단지 수고와 짐을 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부담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느끼는 부담감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세상을 책임지십시오. 저들이 잃어버린 영적 기업을 회복시키는 기업 무르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자원하며 기업 무르기의 책임을 다하였을 때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천 명을 먹이라는 우리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능히 자원하며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어떤 것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2. **예배 후에 8월 사역보고 및 월례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모든 사역 팀들은 사역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친교식사 후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토의와 기도모임이 있겠습니다.**
4. **10월 18일(목)-21(주일)에 시애틀 지역 감리교 연합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우리교회에서 20일(토) 순서를 맡았습니다.**
5. **도산경로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경로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6.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290.00	
감사헌금:	$335.00	
주일헌금:	$82.00	
특별헌금:	$0.00	**합 계: $707.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